

【서평】

이현송, 『미국 문화의 기초』 (한울, 2006)

조지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한 국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국은 지리적 광대성, 인종적 다양성, 사회적 유동성, 인구적 이질성, 문화적 복합성 등으로 인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유구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6·25로 맺은 “혈맹” 관계는 미국을 학문적으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반감시켜 왔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 미국과 전 세계 지역들에서 일정 부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제국으로서의 미국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이해는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문화의 기초』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모순성에 천착하여 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 책은 단순히 미국 사회를 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구별짓는 특징을 찾기 위해 자연환경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여러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제2장). 미국의 풍부한 자원, 경제적 자급자족성과 개방성, 민주적 제도, 개인주의와 경쟁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높은 불평등성과 복지정책의 결핍 등이 다양한 통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설명에 있다. 특히, 이민자의 나라로서의 미국(제3장), 인종의 다양성에 기

초한 미국(제5장, 제6장)은 사회학자로서 저자의 오랜 학문적 성과와 분석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이 책은 인종을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파악하는 관점에서 인종의 개념, 분포, 인종 문제의 역사를 훑고 인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령 있게 살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쟁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히스패닉의 부상은 미국의 주류 문화를 위협하는가, 아시아계 미국인은 ‘모범적인 소수자’인가, 인디언의 집단 정체성은 지속될 것인가, 백인 민족 집단은 백인이라는 단일 정체성으로 통합될 것인가? 인종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는가? 등 사회적 쟁점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인종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지만 이민 문제도 역사적 개괄 및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요령 있게 잘 설명되고 있다. 이민의 사회경제적 효과나 미국화에 관한 논의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민족 사회의 응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사회적 쟁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쟁점은 이민과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 일차적으로 인종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나 이민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언급했다면 보다 더 넓은 시야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의 관심은 이민과 인종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 책은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 프론티어 신화, 예외주의(exceptionalism)와 개인주의 등에도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 내지 사회 현실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다양한 사회통계를 통해 미국의 성공 신화의 사회적 효과를 검토하면서 그 양면성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미국을 어떤 사회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일단 취하고 있는 입장은 불가지론이다. 이 책은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11쪽)는 학문적 자제론으로 제2장을 매듭짓고 있지만, 사실 이 대목에서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읽으려는 독자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이 책의 객관적 혹은 중도적 입장은 정치적으로 반미 정서에 부응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오히려 걸림들이 된다. 이 책은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애증이 미국의 “두 개의 얼굴”(118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좋은 면에서도 매우 특별하지만, 나쁜 면에서도 매우 특별하다. (중략) 여러 좋은 면에서 미국은 서양 문명 전체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반면 (중략) 나쁜 측면에서도 미국은 매우 두드러진 나라이다”(118-119쪽). 여기에서, 모든 역사적 존재가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책이 미국을 다른 나라와 한껏 비교하고 나서는 절대적인 도덕적·객관적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 책에서 미국의 나쁜 면이라고 지적했던 인종차별, 복지제도, 금권정치, 군사적 개입 등은 단순히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유럽이나 남미 혹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떻다고 평가해야 한다. 혹은 어떤 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 결과, 각론에서 얻었던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에 근거하고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예외주의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근거로 제시한 존 윈스롭(John Winthrop)은 1620년이 아니라 1630년에, 메이플라워(Mayflower)호가 아니라 아벨라(Arbella)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윈스롭이 이끈 청교도들은 1620년의 필그림(Pilgrims)과 달리 영국 국교회와의 비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를 구성했고, 후에 필그림의 플리머스 식민지를 편입하였다. 이들의 사회를 “전제주의 사회의 모습 그대로”(19쪽)였다는 이 책의 평가도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편향적인 판단이다. 또한 미국혁명을 설명하면서 혁명의 주도세력을 “반역집단”(22쪽)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대영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적합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평가(용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한국근대사를 설명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나 암살자라고 호칭한다면 바람직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를 “주위환경 덕에 운 좋게 성공을 거둔 사건으로 폄하해도 사실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23쪽)는 평가는 실제로 역사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주장이다. 주위환경에 대한 강조로는 불리했던 전세(戰勢)가 사라토가 전투 등을 통해 역전되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머스 제퍼슨의 주도 아래 새로운 정치 체제의 설계도인 공화정 헌법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24쪽)는 주장도 역시 역사적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 당시 외교관으로 프랑스에 파견되어 가 있었던 제퍼슨은 미국 헌법 제정에 기껏해야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또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19세기 말에 탄생한 용어(49쪽)가 아니라 1840년대 잭슨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했던 용어로 일차적으로는 서부팽창주의와 관련되는 용어다. 그리고 이 책은 “남북전쟁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남부에서 나온 대통령은 한 명도 없으며”(218쪽)라고 말하고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은 뉴저지 주지사를 지냈지만 버지니아 주에서 출생하여 조지아 주에서 14살까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던 인물로서 남북전쟁 이후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남부인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독자의 심층적 독해를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역사 추동력의 역사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프론티어 신화, 미국인의 꿈 신화 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 무디게 반응한다. 예컨대, 이 책은 “프론티어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향한 사람들의 희망을 투영한 신화”(37쪽)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프레더릭 잭슨 터너(Frederic Jackson Turner)의 프론티어 이론(1893년)을 비판하는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서부의 프론티어가 단순히 신화인 것만은 아니다. 이념이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동부보다는 서부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 참정권이던 보통 남성 참정권이던, 참정권의 확대는 서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조차 찬양했던 서부(중서부)의 민주적 삶은 단순히 신화라기보다는 신화 그 이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구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는 그 자체로 그 당시 역사적 존재이며 역사적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꿈’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대체적으로 유럽보다 사회적 유동성이 높았고 실질임금도 높았다. 단순히 신화가 아니었다. 이러한 인식과 분석은 현재적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관점의 편향성이다. 예를 들면, 이 책은 미국적인 것과 근대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적인 것은 모두 근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이를 설명하면서, 저자는 “미국적인 것 중에 근대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117쪽)고 주장하고 그 예로서 인종차별이나 높은 신앙심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 특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고대적 내지 중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적 현상이다. 이는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의 결과이며 근대 의사과학(pseudoscience)의 결과다. 다만 여기에 고전고대와 성경의 논리가 동원된 것이다. 또한 높은 신앙심 역시 미국적 맥락에서는 오히려 근대적 현상이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보다도 19세기 전기의 신앙대각성(Great Awakening)을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오히려 교회신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미국 역사학계의 통설이며, 이 점에서 미국은 유럽과 큰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사회계급에 대한 관심의 결여다. 인종을 제외하고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중요성은 점차 계급의 중요성으로 대체되고”(381쪽)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인종 문제에 관하여 2장씩이나 할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계급적 구성이나 계급적 갈등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젠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더라면, 미국 사회에 대한 보다 더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입문서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은 저자의 고백처럼 “여러 학

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간의 연구”(6쪽)를 근간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작업은 그리 간단하며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문화의 기초』를 비롯한 여러 학제적 연구 성과들이 나올 때마다 경의해 마지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